

2018년 3월 14일(수)

257장 -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 (1)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맘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2) 금이 나온 같이 없어 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것 아니오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3)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4)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후렴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308장 - 내 평생 살아온 길

- (1)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 보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 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 (2) 나 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 (3)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3월 15일(목) 기도 담당 : 염동철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박세훈 목사

예배를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257장 다 같 이
 기 도 권인영 집사
 성 경 봉 독 창 4:9~10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상학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308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창세기 묵상 본문 및 설교 제목>

| 요 일 | 본 문 | 제 목 |
|-----------|-----------|------------------|
| 3월 13일(화) | 창 4:1~8 | 가인은 우리 안에 있다 |
| 3월 14일(수) | 창 4:9~10 |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
| 3월 15일(목) | 창 4:11~15 | 우리는 가인의 후손인가? |
| 3월 16일(금) | 창 4:16~26 |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 |

※ 이른아침예배 시 성경책을 꼭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8년 3월 14일(수)

온 세상의 주인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옵니다.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주님 손에 우리 삶을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망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진실과 공의로 주님께 응답하며 사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악한 영의 꾀계와 공격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합니다. 사랑과 희생이 아니라 분노와 공격으로 삶을 지켜가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시며 다시금 주님의 뜻과 사랑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피가 피를 부르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가는 저희의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환히 비춰주신 하나님, 긴 역사 동안 새문안교회가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일으켜주셔서 때에 따라 한국 교회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상학 담임목사님을 새문안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셔서 새로운 도전과 소명으로 인도해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되게 하셔서 한 영과 한 뜻 안에서 주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쟁의 위기와 갈등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분단국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화 안에서 주님을 함께 경외하고 섬기는 참되고 복된 날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온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 안고 나아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가까이 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삶과 선교가 하나되어 삶의 열매로 감화력 있는 선교의 현장 일구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